

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 향상

익산시, 청소년·여성 등 계층별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익산시가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 국가예산으로 3천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확보 예산의 38%에 달하는 수치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예산 3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총 예산 80억원이 투입되며 월성동 일원에 지

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수업실과 교 육실, 도서관, 체력단련실, 직업능력개발실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청·장년기 발달 장애인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금강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8억8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며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정서 행동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형 전문치유시설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해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북한 문화공간인 '여성가족회관'도 관련 예산 6억9천만원이 확보돼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회관, 다문화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여성가족회관은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자녀돌봄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3일 군경묘지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임인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군산시의회, 군경묘지 신년 참배... 임인년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3일 군경묘지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임인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군경묘지 참배 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극난대망(克難大望)' 시인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해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3명의 시의원들은 위촉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될 것이며 군산의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 한해 23명 의원들의 싱크탱크가 되어 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게 되었다"며 "새해에도 의원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올해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1월 제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번, 임시회 7회 등 총 102일간의 올해 의사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일하는 청년 지역 정착 위한 수당 지원

군산시, 21일까지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저소득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신용·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를 지원받아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여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집인원은 375명으로 지원대상은

청년연령 기간에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 주력산업 분야(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18~39세 군산 청년이다.

지난해에는 지원분야 중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업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으로 한정됐지만 올해는 업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청년의 폭넓은 임금보전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제한을 해제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ud.j.go.kr)에 접속해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증명파일을 첨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1-2682호)를 확인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464-43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현울 시장, 새해 첫 출근 시내버스로 민생소통 행보

정현울 익산시장이 3일 시내버스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며 민생소통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시민들의 마음 속 고충을 듣고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시내버스로 출근길에 나서게 됐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4분 100번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을 일일이 맞으며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올해는 마스크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익산시청에 도착할 때까지 탑승자들로부터 시민들이 바라는 시내버스에 대한 의견과 운송종사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펼친

않이 이어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에 따른 지·간선제 대중교통체계로 대대적 개편이 예고돼 이에 따른 익산형 지·간선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거점환승센터 조성, 소형버스 전환, 노선 변경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현장에 나선 것이다.

익산형 지·간선제는 ▲도심에서 합승 열 ▲도심에서 금마·여산을 주요거점으로 시내버스가 정시 운행하고 ▲기타 읍면지역은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규 노선제, 기타 시간대는 골제로 운영하는 운영방식으로 버스 운행 효율성 및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익산시는 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3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차단 및 방역관리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의거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익산시 공공시설 방역강화 조치 또한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2주간 연장 적용 중이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배산실내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응모캠프장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18일까지 운영 중단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경우 청소년 등 학습을 위한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3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하에 50% 제한된 개방을 시행 중이다.

시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2차 접종 후 180일 경과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 제도에 의거 시행 계도 기간인 9일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유효접종일 등을 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대시민 홍보 중이다.

또한 사적 모임 규제는 현재와 같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기존 22시까지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정부방침에 청소년 예방접종실시, 대규모 집회 방역패스 도입 등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금강미래체합관, 기후위기 체험학습 1만3000명 참여

금강미래체합관(구)철새조망대, 이하 체합관은 2021년 진행한 '금강미래 체험학습'이 군산중학교 수업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합관은 어린이 및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개의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체합관에 방문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대면 수업 및 학교 출강 수업을 확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3,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에 운영한 체험학습 중 참여자가 가장 많은 수업은 '찾아가는 초등미래교실'이다. 이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과 체합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체험교육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관리 협약 체결

군산시는 군산대정문원통합의회와 군산대 앞 완충녹지대 환경정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완충녹지대는 새만금복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군산을 찾는 유동인구가 오가며 볼 수 있는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나무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쌓여있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예산 5천만원을 활용해 묵혀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우거진 수목정점 및 초화류 식재와 함께 인도변을 비추는 보안등을 설치해 완충녹지대를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로 탈바꿈 시켰다.

시는 정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대가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군산대정문원통합의회와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 줍기, 시설물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